

함세덕 <고목>에 나타난 민족담론의 형상화 전략

백승숙*

- I. 서론
- II. 인민, 민족, 국가의 개념과 그 상관관계
- III. 민족담론의 방향과 전략
 - 1. 사회진화론적 시간관
 - 2. 인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접합
 - 3. 극의 장르성과 풍자성 인물
- IV. 함세덕 <고목>의 회곡사적 의미와 한계
- V. 결론

【요 약】

이 논문은 함세덕이 해방기에 쓴 회곡 《고목》에 나타난 민족담론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목에 나오는 모든 대사들은 우파의 개념을 전복한 자리에 좌파의 개념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고목은 ‘인민’, ‘민족’, ‘국가’ 개념의 재정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해방기의 가장 첨예한 문제였던 새 국가 건설에 용이한 담론을 획득하기 위해서였다.

함세덕은 좌파적 국가 건설을 위한 담론 생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상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첫째는 사회진화론적

* 영남대학교 강사

시간관의 활용이다. 고목은 근대적 역사관 속에 내재해 있는 상속성과 보편성의 관념을 이용하여 해방기 우파의 몰락의 필연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인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접합이다. 함세덕은 북한을 인민 중심의 민족국가로 추상화하고 남한을 독재자 중심의 반민족적 파쇼 국가로 재현하기 위해 인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접합이라는 방법론을 시도하였다.

셋째는 극의 장르성을 활용하여 해방기의 역사적 갈등을 봉건 우파의 몰락과 좌파의 필연적 승리로 그려내고 있으며, 이는 ‘거북’이라는 풍자적 인물형상 창조에 성공함으로써 성취되고 있다.

I. 서론

한국에서 ‘민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00년 무렵, 황성신문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민족담론이 중심적 담론으로 등장한 것은 러일전쟁 이후라고 할 수 있다.¹⁾ 민족담론은 이후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좌우 민족담론으로 분화되어 나타나다가²⁾ 일제의 탄압이 가혹해지면서 담론의 장에서 사라져 간 바 있다. 해방기는 그간 잠재되어 있던 ‘민족’이라는 의미가 폭발하면서 ‘민족담론’이 재등장한 시기인데 역시 좌우 민족담론의 갈라진 형태로 드러났다.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좌우 대립이 해방기에 이르러 다시 선명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우파가 이승만을 중심으로 ‘조선민족 대동단결’을 역설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좌파도 박헌영을 중심으로 8월테제를

1) 백동현, 「대한제국기 언론매체와 근대민족담론의 변화」, 『내일을 여는 역사』 제 19호, 2005. 3 참조

2) 김정인, 「1920년대 전반기 민족담론의 전개와 좌우투쟁」,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제 39권, 2001, pp. 232-259 참조

통해 당시 정국을 주도할 주체로 ‘인민’이라는 이름의 당시 대중을 설정함으로써 광범위한 민족 구성원들이 국가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논리적 기틀을 다졌다. 8월테제를 더욱 구체화한 임화의 ‘인민성’ 개념은 비록 노동 계급의 주도성을 전제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한국인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³⁾

이처럼 해방기에 각기 자신들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를 꿈꾸었던 좌, 우파 모두 당시 대중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보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담론으로서 ‘민족담론’을 택했다.

해방기의 민족담론은 해방 초기에 좌파가 선취한 듯 보였으나 1947년 을 기점으로 우파에게 그 헤게모니가 넘어간 형세를 보였다. <고목>은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한 작품으로서 이미 우파의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민족담론의 요소들을 좌파의 것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목>이 얻어내고자 한 담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는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미학적 장치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관심사이다.

1988년 월북 작가 해금 조치 후에 비로소 우리 눈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고목>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비교적 많이 있어왔다. 유민영⁴⁾이 이에 대해 남로당의 정책 선전극이라고 일축한 비평을 한 바 있어, 이후 연구자들에게서는 냉전시대의 비평적 경직성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고목>을 바라보고자 한 시도가 눈에 띈다. 양승국⁵⁾, 김재석⁶⁾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즉, <고목>이 지닌 희곡적 형상화 능력의 탁월함과 날카로운 사회비판의

3) 이명찬, 「해방기 김기림 시론에 나타난 민족주의의 성과와 한계」, 『한국근대문학과 민족·국가 담론』, 소명출판, 2005, p.309

4)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홍성사, 1987, p.336

5) 양승국, 『해방공간대표희곡 I』, 예문, 1989, p.191

6) 김재석, 「고목에 나타난 일제 잔재 청산과 기득권 유지기대의 충돌」, 『함세덕』, 태학사, 1995

식을 높이 사게 된 것이다. 이후 <고목>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어 <고목>이 일제시기 <거리는 쾌청한 가을 날씨>의 개작임이 밝혀지고,⁷⁾ 미군정 검열본인 <당대놀부전>도 발굴되어⁸⁾ <고목>을 둘러싼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이상란⁹⁾, 장혜전¹⁰⁾, 등의 논문은 <고목>에 대한 상세한 작품분석이 돋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간의 연구들은 <고목>이 지닌 정치적 담론으로서의 의미와 내용을 명백히 밝혀주지는 못한 것 같다. 당시는 좌우대립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이며, 그 중에서도 함세덕은 당시 대표적 좌파 문화단체였던 조선문학가동맹의 연극부에서 맹활약을 하던 인물이다. 그러한 치열한 역사적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 지닌 정치적 맥락을 짚어내고 희곡 작품을 통해 시도했던 담론의 내용과 이를 위한 미학적 장치를 드러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고목>이 지닌 민족담론으로서의 의미를 살피고 그 형상화 전략을 드러냄으로써 <고목>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서 보려고 한다.

II. 인민, 민족, 국가의 개념과 그 상관관계

이 극의 시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1946년 여름의 대폭우 후에 전국적으로 수해구제운동이 일어났는데, 좌우 정치세력들은 수해구제운동 및 이전부터 있어오던 전재민 구제운동 등과 관련하여 각기 민족담론을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고

7) 김동권, 「함세덕 희곡의 개작과 그 의미」, 『건국어문학』, 제23, 24합집, 1999

8) 김동권, 「당대 놀부전 작품해설」, 『한국연극』, 1998. 7

9) 이상란, 「함세덕의 고목에 나타난 역사적 담론분석」, 『민족문학사연구』 6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4

10) 장혜전, 「함세덕 희곡의 지속과 변모」, 『한국희곡작가연구』, 태학사, 1997

시도한 바 있다.¹¹⁾ 해방기 구호운동에 나타난 민족담론은 혈연적 관계의 강조, 집단윤리의 강조, 파시즘적 전체주의 논리 그리고 강한 배외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다. 좌파와 우파는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담론을 통해 전제민 구호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으며 민족적 가치가 전면에 내세워지는 조건 하에서 양자의 차별성은 모호해졌다고 할 수 있다.¹²⁾

함세덕은 <고목>에서 당대의 이러한 담론의 흐름을 포착하여 관객들의 보편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려 했다. 대폭우로 인한 수해 구제운동과 전제민 구호운동이라는 명분은 다수 대중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소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세덕이 <고목>에서 의도한 것은 훨씬 더 정치적인 것이었다. 당시 위기에 몰린 좌파 정치세력의 도덕성을 알릴 뿐 아니라 해계모니를 회복하려는 치열한 목적성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차별화된 담론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고목>에 나오는 모든 대사들은 우파의 개념을 전복한 자리에 좌파의 개념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남한에서 한창 해계모니를 얻고 있던 우파의 이데올로기적 개념들을 재정의하지 않고서는 좌파의 ‘민족담론’은 설 자리가 없었기에 <고목>은 치열한 방식으로 그 무엇보다도 우파 개념의 전복과 재정의

11) 좌익계열의 <독립신보>는 수해구제활동을 “민족통일전선전술의 정당한 실천”으로 파악했고 민전은 1946년 6월 28일 위원장 여운형, 부위원장 허헌으로 수해구제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하단체를 총동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익 또한 자신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민족에 대한 헌신’을 통해 보여주어야 했기에 다양한 방면으로 구호운동에 개입하고자 했다. 1946년 수재 시에도 민주위원과 독촉국민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극우파 <대동신문>은 1946년 6월 28일 수재 의연금 모금을 개시했다. 우익의 구호운동은 1946년까지 ‘민족애’에 기반한 구호 호소가 1947년에 들어서면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적 비난과 결부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황병주, 『미군정기 전제민구호운동과 ‘민족담론’』, 『역사와 현실』 제35권, 한국역사연구회, 2000. 3, pp.76-113 참조)

12) 황병주, 앞의 논문, pp.76-113 참조

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야말로 남한 내 좌파가 마지막으로 전력투구하여 새로운 담론 형성의 주체로 서고자 했던 사회적 위기의 시기였기 때문이다.¹³⁾ 우선 ‘인민’이라는 개념부터 보자.

巨福 : 하지만, 이번 장마루 읍은 깨끗이 됐어. 차 타구 지날 적마다 그놈의 우중충한 토막들만 보면, 불결하구 흥해서 구웁질이 나드니 이번 기회에 아주 깨끗이 잘 청소됐어. 호텔자만 하드래두 그렇지, 구월리하구 수문통서 발생했거든.

주인공 거북은 ‘인민’은 불결하고, 청소돼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파시즘적 사고를 엿보게 하는 거북의 위와 같은 대사는 봉건지주를 비롯한 당시 우파 지배계층이 지닌 가난한 다수 대중에 대한 무지와 적의를 일깨우기 위해 제시되었다.¹⁴⁾

巨福 : 거지는 나라두 못구한다구 했오.

巨福 : (참았던 분격이 터진다) 빛이, 사람의 때가 묻었어? (내뱉듯이) 흥,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나? 산신령 같은 나무를 벼두 벌목인 벌목이구, 공동묘지의 상수리나물 벼두 벌목인 벌목이야.

13) “살아 있는 이데올로기 각각은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하고 있다. 현재 통용되는 악담도 칭찬의 말로 될 수도 있고, 현재는 진실로 통하던 말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하게 가장 나쁜 거짓말로 들릴 수 있다. 이러한 기호 내부의 변증법적인 특성이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인 위기나 혁명적 변화의 시대 뿐이다.”(V.N. 볼로쉬노프, 송기한 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2005, p.44)

14) 이러한 시각은 당시 미군정의 방역사업과 ‘도시미관’을 위한 단속 사업에서 나타난 대전재민 인식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극의 시간적 배경인 1946년은 가히 전염병의 해였으며 전재민은 방역사업의 일차대상이었고, 질병과 건강의 경계지점에서 민족과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로 파악되었다. (황병주, 앞의 논문 참조)

함세덕은 위와 같이, 거북의 대사를 통해 우파의 ‘인민’ 개념을 풍자하고 있다. 즉 우파는 ‘인민들’의 가난은 나라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고, 계급 역시 변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파의 ‘인민’ 개념을 비판한 자리에 다음과 같이 좌파의 ‘인민’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로 ‘초국’, ‘막봉이’ 등 빈민들과 사회주의자 청년 ‘하동정’에 의해 진술되고 있다.

樵國 : 뭇이 어찌 이눔, 제고장에서 못살구 타방으루 품파리 갔다구? 너 이눔 말 잘 했다. 나를 이 동리서 함경두 산골루 내 쫓인눔이 누구냐, 응? 누구야? 네눔할아범하구 네눔하구 아니냐? 네눔 할아범이 우리 할아버님 땅을 뺏구, 느이 아범이 우리 아버님 땅을 뺏구, 네눔이 우리집하구 땅을 저당으로 집어셋기 때문에, 내가 헐수없이 개나리 붓뼨을 싸가지구 백무선 벌목이루 들어간 게 아니냐?

위 초국의 대사는 ‘인민’이 못살게 된 것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봉건지주들의 착취로 인한 것임을 밝히기 위해 제시되고 있다.

막봉이 : 네전하구 똑 같다문야, 기쓰구 독립할 게 뭐예요?

위의 대사는 정치적 독립보다 그들의 생존이 더 절박한 존재들로서의 소작농, 즉 ‘인민’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東正 : ...요새말로 하면 인민을 위한나라란 말입니다. 수해 동포나 전재민이란, 우리 인민중에 가장 고초를 받고 있는 불상한 동포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쓰는것이 어찌서 나라를 위해서 쓰는길이 아니겠습니까?

즉 이 극은 인민 중에서 가장 고초를 받고 있는 ‘수해동포’나 ‘전재민’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그들의 복지에 신경 쓰는 것이 곧 ‘나

라'를 위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 위 '동정'의 대사를 통해 함세덕은 비로소 자연스럽게 '인민'과 '국가'의 개념을 결합시키고 있다.

다음은 '민족'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巨福 : 하선생은 동포 동포 하시지만, 동포엔 전제민과 수제민만 있답디까? 공장주인도 있구, 상인두 있구, 객교장 같은 목사두 있구, 순사 형사두 있구, 또 나 같은 지주도 있오. 나는 이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조선 삼천만 동포들을 다가치 위해서 쓰구 싶단말이요.(漸漸 興奮하여진다) 목전에서 잠깐 고생하는 전제민 수제민들만이 아니라, 삼천리 우리 금수강산에 사는 삼천만 대한민족 전부를 위해서 쓰구 싶단 말이요.(하고 마루를 친다)

위는 우파의 '민족' 개념이 봉건지주와 친일파를 포함한 개념임을 보여준다. 이는 이 극의 풍자대상인 '거북'의 입을 통해 발화됨으로써 풍자적인 울림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 거북의 위 대사는 '민족 전체'를 위하여 쓰겠다는 명분을 이용하여 실제적으로는 전제민, 수제민을 돕지 않으려는 변명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 대사를 통하여 이 극은 이승만을 비롯한 우파의 '민족' 개념이 사실상 봉건지주와 친일적 지배계층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임을 폭로하고자 하였다. 이제 그 대안으로 제시된 좌파의 '민족' 개념을 살펴보자.

積伊 : 뭉치는거야 좋지만, 쌀에다 양젓물을 어떻게 뭉치겠어요? 친일파, 민족반역잔 양젓물이에요. 먹으면 죽는 양젓물이에요. 팻하구, 콩하구, 수수, 조, 쌀치 합치면 맛있는 오곡밥이 되지만, 그우에다 양젓물을 섞어보세요. 그밥먹구 살수있나.

진이의 대사를 통해 작가는 좌파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민족'의 개념에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을 알린다. 또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민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우파들의 사고야말로

‘민족’을 죽음으로 이끄는 잘못된 것임을 계몽하고자 하였다.¹⁵⁾

마지막으로 ‘국가’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국가’는 이 작품에서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쓴 개념이며, 극의 주제의식이 녹아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巨福 : 그놈들이 나라를 사랑해? 그놈들 나란 우리 한국이 아니라 아라사야. 그놈의 나란 공산주의 나라거든. 아라사놈의 개가 되두 좋구, 종이 되두 좋니 그저 공산주의만 하겠다는 거야.(점점 흥분해 온다) 애비두 하래비두 모두 동무동무 하는 공산주의만 하겠다는 거야. 손꾸락 에두 길구 짧은 게 있구, 개똥채미에두 큰 놈이 있구 적은 놈이 있는데 모두 똑가치 노나먹자는 그 부란당패 같은 공산주의만 하겠다는 거야.

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 극에 나오는 거북의 공산주의 비판은 당시 일반대중들의 의식을 채록한 듯한 생생하고 살아있는 대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곧, 거북이 것처럼 좌파를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다음과 같은 봉건지주로서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작가가 결국 비판하고자 한 것은 봉건우파임을 알 수 있게 한다.

巨福 : 대단칠 않다니? 그게 대단칠 않으면 어떤 게 대단하단 말이

15) 이는 이승만의 통일론을 비판하는 대목인데 임화가 안희남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일지된 견해를 읽을 수 있다. “<덜어놓고 뭉치자>는 통일론은 친일파, 민족반역자까지를 다 집어넣고 토지개혁도 민주주의 노동법도 다 불문하고 일본제국주의 대신 일제의 주구이었던 지주와 자본가들이 그대로 전민족을 지배하자는 이론이요 나아가서는 조선을 외래 제국주의로 화하려는 자들의 정치적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제거와 삼상결정의 총체적 지지가 친일파, 좌우합작에 관한 민전오원칙의 주요부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외래독점자본의 주구로서 반동지주와 토착자본가의 독재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이 그들의 통일론이요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임화-안희남, 「작품에 관한 서간」, 『문학평론』3호, 1947. 4)

야, 응? 가족들의 사상문젠 우리 애국당 간부를 뽑는 데 있어 여간 큰 문제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오늘 대회에서 님원을 개선하는데, 내가 또 다시 재정부장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문제하구 중요한 관계가 있단 말이야. 오각하께선 우리 애국당 지부 역원들 가족에겐, 빨갱이는 물론이거니와 분홍이나 회색두 있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巨福 : 그렇게 되면 공산당패에서 ‘땅은 농민에게’ 소릴 감히 해? 당장 잡아다 물고를 낼 테야.(점점 흥분해 온다) 땅은 절대 루 작인들한테 뺏길 염려 없어. 집두 뺏길 염려 없구. 은행 예금두 뺏길 염려 없어. 뺏기긴커녕 일본놈들 두구 간 땅, 신한공사에 얘기해서 떠맡아 가지구 지금보담 곱은 늘릴 수 있어. 소작료 많네 하구 군소리 하는 놈들은 이루 사정없이 무 줄거리 찢르듯 탁탁 쳐버리구 쌀은 종전대루 또박또박 받아서 저 곡간 속에다 가득히 싸놓구 다리 뺀구 살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서울 가 있는 수정이가 대학을 졸업하구 내려오는대루, 이 집하구 땅을 물려주구 난 맘 툅 놓구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 공산당 부관당패들한테 손톱 하나 까닥하지 못하게 하구 고스란히 큰애한테 물려줄 수 있어. 수정이꺼정 가면 사대째야. 할아버님부터 사대째야.(감격하야 눈시울이 시큰해진다)

위는 토지소유제 유지를 위해 거북이 강력하게 공산당을 제외해야 할 필연성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다. 즉, 우파가 공산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오직 그들이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거북이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내용은 우파의 ‘국가’ 개념의 실체가 봉건적 토지소유제와 계급 차별의 유지, 존속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巨福 : 삼팔선 이북은 이북대루 내버려 두구 우리 남조선만이라두 정부를 세워야겠다구 하시는 거야. 공산당놈들은 그렇게 되면 남선에선 자라 모가지처럼 썩 들어가구 말 게야. 인민위원회

니 농민조합이니 땀글어가지구, 지긋지긋이두 우릴 못 살게 굴드니 인젠 앓든 니 빠지듯 시원하게 됐어. 우리가 미국사람한테서 정권을 맡게 되면 대신, 국장으로부터 지방의 경찰서장, 역장, 허다 못해 동회총대까지두 우리편에서 할 작정이야.

위는 우파 중심의 국가권력이 ‘민족’을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물욕, 권력욕과 결탁해 있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단독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함세덕은 우파=기득권층=단독정부의 등식을 세워 이승만이 추진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이제 이와 대조하여 제시된 좌파의 ‘국가’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東正 : (...) 이리상이란 앞으로 우리들이 세울 새로운 나라에의 리상이었으며, 새로운 나라란 님금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 백성자신을 위한 나라여야만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새말로 하면 인민을 위한나라란 말입니다. 수해 동포나 전제민이란, 우리 인민중에 가장 고초를 받고 있는 불쌍한 동포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쓰는 것이 어찌서 나라를 위해서 쓰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위의 대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극은 좌파의 ‘국가’는 인민을 위한 국가임을 명시하는 데 가장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결국, 좌파의 ‘국가’ 개념이야말로 인민=민족=국가의 등식이 성립하는 완성적 개념임을 설득함으로써 좌파 중심의 민족국가 건설의 당위성을 말하고,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피력하고자 한 것이다.¹⁶⁾

16) 당시 함세덕이 속해 있던 남로당의 입장과 시각은 분명한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임화의 진술이 이를 잘 증명해 보여준다. “북조선은 남조선과 달라 일체의 권력이 조선인민들의 수중으로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붉은 군대는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권력을 탈취하여 그것을 자신들의 수중에 넣어 두는 대신 그 자리에서 조선인민들의 정권인 인민들의 위원회로 넘겨주

즉, 함세덕은 <고목>을 통해 당시 남로당이 제시한 국가 모델의 남한 내 수립을 선전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곧 모택동, 박헌영, 임화, 김남천 등으로 이어지는 ‘연합독재(인민연대) 국가모델형’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¹⁷⁾

이를 통하여 볼 때, <고목>에서 함세덕은 ‘인민’, ‘민족’, ‘국가’ 개념의 재정의에 주력하였지만 ‘인민’과 ‘민족’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국가’ 개념 안에서 수렴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방기 함세덕의 민족담론이 어떻게 국가담론으로 귀결되어지는지를 나타내 보여준다.

해방기는 주지하는 대로, ‘국가 건설’의 열정에 사로잡힌 시기였다.¹⁸⁾ 해방을 맞아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무엇보다도 단일한 민족국가 건설을 열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기 조선에서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국가주의도, 정신만

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조선인민들은 사실상으로 국가의 주권자가 되었고 북조선만은 조선인민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임화, 「북조선의 민주건설과 문화예술의 위대한 발전」, 『문학평론』 3호, 1947. 4)

17) “김윤식은 해방기에 제시된 ‘나라 만들기’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했다. (A) 부르주아 단독 독재국가 모델형, (B) 노동계급 단독 독재국가 모델형 (C) 연합독재(인민연대)국가 모델형이 그것이다. 그 중 (C)형은 어떠할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기본향으로 한 조선공산당 박헌영의 8월 테제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이 뒷날 남로당(1946.10)이라 불렸으며,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소지식인 등의 연대로 한 연합 독재형 국가 모델이 그것이다.”(김윤식,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263)

18) “삼천만 인민의 절대다수의 행복과 불행이 앞으로 수립될 정부의 성격과 지대한 관계를 가진 현재, 문화가 정치의 권외에 선다는 것이 대체 허용될 것인가?”(임화,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 임무」, 『문화전선』 창간호, 1945. 11)

“ [...]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본제국주의의 압박 밑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 하고 싶은 말도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신국가건설을 위해서 받치겠다는 환희의 소망이라고 할까 진심에서 끝나오는 희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김기림, 「건국동원과 지식계급/좌담」, 『대조』 2호, 1946. 7)

의 민족주의도 아니었다. 민족과 국가를 동일선상에서 동시에 밀고나가는 논리의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였던 것이다.¹⁹⁾

함세덕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파의 ‘인민’, ‘민족’, ‘국가’의 개념을 재정의한 후에, 이를 ‘국가’ 개념 안으로 수렴시킴으로써 ‘민족담론’의 형태를 빌어 좌파적 국가 건설의 당위성을 논리화하고자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I. 민족담론의 방향과 전략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목>은 기존에 있던 우파의 개념을 좌파의 그것으로 대체하려는 적극적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그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기보다는 극작술 속에 잘 녹아 있기에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듯하다. 이는 작가가 당대 민중들의 사회적, 심리적 상태와 담론적 상황을 간파하여 그에 적합한 담론 전략을 구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함세덕이 이 작품을 통하여 사실상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 정치체제의 우월성과 좌파적 민족국가 수립의 필연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수해 구제와 전재민 구호’라는 소재만으로는 약했기에 동원된 것이 바로 북한의 ‘토지개혁’이라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수해구제라는 소재를 배경으로 하여, 실제로는 토지개혁이라는 시대적 사건을 고목을 둘러싼 갈등으로 압축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이제부터는 이러한 확고한 정치적 의도를 회곡적으로 내면화하여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 그가 작품에서 구사한 민족담론의 방향과 그 형상화 전략에 관해 알아보겠다.

19) 이명찬, 앞의 논문, 앞의 책, 2005, p.314

20) 김만수, 『함세덕』, 건국대학교출판부, 2003, p.140

1. 사회진화론적 시간관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사회진화론²¹⁾은 종래의 순환적인 시간관 대신 근대의 직선적 시간관이 ‘진보’라는 목적론과 결합하여 제시되었다는 점, 근대적 국가와 민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인민을 근대적 형태로 규율화 내지 조직화하는 세부적 담론들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진화론적 인식은 우리나라에서도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종의 상식으로 자리잡아갔다. 이인직, 이광수 등을 비롯한 개화기의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이 지니는 일종의 자연법칙적 권위에 의해 제국주의 앞에 약소민족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인식에 사로잡힘으로써 친일로 나아가기도 했지만, 한편 ‘자강’과 ‘자아각성’의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근대적 담론 안으로 편입되는 길을 열어주었다.²²⁾

이러한 사회진화론은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확고한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 사상과는 달리 일반인들의 상식적 관념체계 안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어서 그 영향력은 더 큰 것이었다.

함세덕은 <고목>에서 당시 대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사회진화론적 시간관을 작품 전체의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방’이라는 실제적 사건은 당대 좌파 지식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21) 에라스무스 다윈에 의해 시작된 자연진화론은 허버트 스펜서 등에 의해 인간사회에 적용되어 사회진화론이라는 관념체계로 만들어졌다. 이 사회진화론은 결국 제국주의적 민족주의/국가주의를 지탱하는 이론으로 기능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가토 히로유키와 후쿠자와 유키치 등에 의해 국가유기체설에 입각한 사회진화론이 받아들여졌고, 중국에서는 량치차오에 의해 역시 민족제국주의적인 성격의 사회진화론이 유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길준과 윤치호 등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장수익, 『한국근대소설과 사회진화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9집, 2006. 6, pp.273-308 참조)

22) 장수익, 앞의 논문 참조

‘역사가 진보한다’는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이 진리임을 확인시켜주는 증좌로서 이해되었으나²³⁾, 일반인들에게 그것은 이미 보편적 사고의 틀로 자리 잡은 사회진화론적 인식 수준에서 받아들여졌다. 사회진화론에서도 인간사회가 진보를 거쳐 완전한 이상적 사회에 도달하리라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함세덕은 이러한 양자의 인식론적인 간극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작품의 전반적 기조로는 사회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깔고, 그 위에 좌파적 역사관을 덧입힘으로써 대중들과의 괴리감을 줄이려는 담론 전략을 세운 것이다. 그렇다면 <고목>에서 사회진화론과 좌파적 진보사관이 어떻게 논리적 결합을 이루어내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고목>에는 ‘해방’이라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시대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대사들이 종종 나온다.

영팔 : 시대가 그만큼 개명된 건 사실이에요.

영팔 : (말을 막으며) 누님두, 지금은 그때하구 시세가 달라요. 시세가. 할아버님은 전쟁이 니러날 줄이야 생각하셨겠수? 일본놈들이 괴나리봇짐을 싸가지구 현해탄을 다시 건너가구 조선이 해방이 될 줄이야 생각이나 하셨겠냐 말이우.

위의 대사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해방’이 한국 민족에게 도래한 것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시대가 개명된 현실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시대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23) “이번 민주주의 대 군국, 파시스트 전쟁의 승패는 어느 쪽의 희망조건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역사적 법칙의 현실적 증좌인 것이다.”(이원조, 「비평가의 임무」, 『개벽』 73호, 1946. 3)

24) 이송희, 「한말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전개」, 『부산사학』 제22집, 1992. 6, pp.99-139 참조
박성진, 「한국사회에 적용된 사회진화론의 성격에 대한 재해석」, 『근현대사강좌』 제10호, 한국현대사연구회, 1998. 12 참조

떡운 후에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대사가 나온다. 이는 토지개혁 또한 이러한 시대전환과 더불어 당연히 도래할 수밖에 없는 역사 진보의 결과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樵國 : 허지만 너두 이놈아 인젠 먹은 거 겨눌 날이 왔다. 함경두선 너 같은 지주놈들의 땅하구, 일본놈들이 뺏어갔든 땅은 모조리 몰수해서 작인들한테 전부 노나줬다. 작인들은 대두 한 말에 두 되 가웃씩 현물세를 바치구 나선 남겨진 떡 해먹구, 술 해먹구, 자유 판매하구 제 맘 제 콩이야. 천지가 뒤바뀌어 이놈아. 개벽을 했어. 느이놈들이 잘 먹구 날뛰든 세상이 뒤바뀌단 말이야.

위와 같은 대사들은 생동감과 더불어 당당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해방’과 마찬가지로 ‘토지개혁’ 역시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처럼 동시대적으로 발생한 일들을 언급하면서 역사적 진보의 현실적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이 후에 펼쳐질 극의 논리에 대해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의식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해방은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 한국인들에게는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표면적인 해방의 이면에는 강대국들의 냉엄한 이해관계가 침예하게 잠복해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에서 실시된 ‘토지개혁’ 역시, 북한이 소련에 의해 점령되었기 때문에 소련 주도로 진행된 사회주의적 혁명 단계의 일환으로 전개된 일이다. 그것들은 ‘역사적 법칙’이라는 의미로 진리화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고 강대국들의 현실적 힘의 논리에 의해 관철되어나가고 있던 일들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중들에게 있어 그것들은 절대적, 자연적 원리에 의해 주어진 신비로운 현실로 비쳐질 수 있었다.²⁵⁾ 함세덕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환상과 열정을

25) 이러한 사고방식은 신생 포스트식민 민족 국가들이 지니기 쉬운 ‘식민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의 안목과 심리를 간취하여, 이를 극의 내적 논리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함세덕은 또한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정권의 수립이 야말로 역사의 필연적인 귀결이며 진리의 현현인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東正 : 잔재란 누구든지 자기자신은 의식지 못하는것입니다. 닉의 조부님께서 생존하셨을땐, 나라란 곧 임금을 의미했든것이고, 나라를 위해 쓰는일이란 곧 임금을 위해 쓰는 일이였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님의 이 유제는 수국아버지 머리 속에 그데로 내려와, 오각하의 얼굴에 지난날의 대한과님금의 면모를 느끼게 하였든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쓰는길이란 곧 오각하를위하여 헌납하는 길이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님대로부터 아버지대를 거쳐 수국아버지대에 니르는 삼십여년동안에 조선은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 없이 살아왔을망정 나라에 대한 리상은 늘 백성과 함께자라왔었고, 모든애국자들은 이 리상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왔었습니다.

이리상이란 앞으로 우리들이 세울 새로운 나라에의 리상이었으며, 새로운 나라란 닉금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 백성자신을 위한 나라여야만 되겠다는것이였습니다. 요새말로 하면 인민을 위한나라란 말입니다. 수해 동포나 전제민이란, 우리 인민중에 가장 고초를 받고 있는 불상한 동포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쓰는것이 어째서 나라를 위해서 쓰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위 대사는, 봉건 시대를 거쳐 역사는 반드시 민주주의 시대, 인민 중심의 시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진보 사관에 기반하고 있다. 함세덕은 여기에서 암시적으로 좌파적 국가 건설이야말로 역

과거를 망각하려는 의지'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릴라 간디,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p.16)

사적 필연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아래와 같은 이 회곡의 마지막 지문은 이러한 시각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無機物과 昆蟲과 人間의 이 세가지소래는, 새로운 時代에의 建設과
吾不關焉의 中立과 歷史에 落伍된 反動者의 悽慘한 末路의 號泣 그대
로를 暗示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기물과 곤충과 인간의 소리가 혼연일체가 되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봉건 시대의 몰락과 새 시대 건설의 필연성이다. 사실상, 함세덕은 봉건 시대의 종말과 근대사회의 도래라는 현실 역사의 구도를 사회진화론적 시간관의 매개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봉건 시대의 종말과 좌파 민족국가의 도래’라는 구도로 축소, 변형하여 재현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북한 인민공화국의 탄생이 역사적 필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국가’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실체로 부상되고 추상화되는 것이다.²⁶⁾

함세덕은 남로당이 제시한 국가모델을 선전하고 북한정권을 찬양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족담론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중적 지지를 받기 어려웠던 좌파적 사상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미 보편화된 사회진화론적 관념을 배경으로 이용함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하는 한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였다.

즉, 거북은 운명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봉건 시대의 대표자로 그려지고, 사회주의자 동정은 상승하는 세대의 주역으로 자연스럽게 재현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작가의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

26) “‘국가’와 ‘국민’에게 절대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의 역사적 필연성을 증명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오선민, 「민족통합의 서사전략」, 이승원, 오선민, 정여울,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3, pp.155-156)

에 근거한 것이지만, 당대 대중들을 사로잡고 있던 사회진화론적 인식이 극 전반을 관류하도록 한 극작술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인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접합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 사회에서 탈식민지적 운동의 방법론이기도 했던 마르크시즘은 지식인 집단 사이에 광범위하게 인민주의적 사고를 유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절대 다수의 소박한 인민들 속에, 그리고 그들의 집단적 전통 속에 선이 존재한다고 믿는 인민주의는 하나의 특정한 원리라기보다는 어떤 신드롬으로 설명된다. 인민주의의 사고 속에서 모든 악의 근원은 근대의 산업화이며 이방의 음모자들이다. 기계와 문명이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을 파괴했으며 외부의 음모자들에 의해 순박한 삶의 질서가 교란되었다는 현실인식은 모든 인민주의적 사고의 공통기반이다. 이러한 파괴와 야만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원시주의, 회복되어야 할 이상적 공동체로서의 농촌을 모범으로 삼는 농본주의 등은 인민주의를 이끄는 핵심적 정서가 된다.²⁷⁾

해방 후, 인민주의는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당위와 맞물려 다시 한 번 그 도덕성을 인정받으면서 조명을 받게 된다. 이것이 곧 해방 후 좌파 운동의 활성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인민주의는 <고목>에서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좌파적 민족국가 담론을 생산하는데 기여한다.

<고목>에는 북한을 재현한 장면이 두 곳 존재하는데 그 장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7) 김철, 『국민이라는 노예』, 앞의 책, pp.226-227

樵國 : 어떤인 바다가 좋다구 하구, 어떤 인 또 대치가 좋다구 하지
만 산에 다야 델 수 있나? 산 중에서두 백암 해산진 백무선
을 타구 두만강으루 들어가는 연변 일덴 참 산 중의 산이지,
산 중의 산이야.

巨福 : 호랭이가 있다지?

樵國 : 호랭이 뿐인가? 늑대, 곰, 여우, 너구리, 뱀, 노루, 사슴, 토끼,
매, 수리, 짐성이란 짐성은 다 뿔지. 사람이라군 김일성의 항
일 군대가 몇 달에 한번씩 지나갈 뿐이구, 그 외엔 바람하구
눈하구 안개만 드나드는 그야말로 령검한 숲이야.

巨福 : 아직두 눈이 허영게 썩다지?

樵國 : 그럼, 지금두 겹바지 조고리가 선선하니까. 구월들어서면 벌
서 첫눈이 풀풀 날리기 시작하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산속
의 그 고요란, 참말이지 말론 움길수 없어. 그 사일 뚝구,
쨍, 쨍하는 도끼소리만이 들려 오거든. 그리고 그 도끼소리
가 수백길되는 깊은 골자구니에 울려서 산울림으루 되도라
오구. 그 하늘을 찌를듯한 큰 나무가 천둥을 치듯 쿵하구 쓸
어지는 그 장쾌한 맛이란, 도회지선 도저히 맛볼수 없어.

巨福 : 삼팔선만 끊어진다면 나두 한번 꼭 가보구 싶네.

樵國 : 자넨 저 행자나무가 오백 년 됐다고 자랑하지만 거긴 오백
년 넘지않은건 하나두 없어. 대개가 칠팔백년이구 나이 많
은 건 천 년 이천 년 짜리두 수두룩하네.

위 장면은 <고목>에서 가장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묘사가 가득
한 장면이면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두 장면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원시적인 자연성, 무시간성 속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북한을 영원성, 변치 않는
진리성을 담지한 장소로 재현해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²⁸⁾ 다음은
북한을 언급하고 있는 나머지 한 장면이다.

28) 레이 초우는 이를 ‘원시적 열정’이라고 부른 바 있다.(레이 초우, 정재서
옮김, 『원시적 열정』, 이산, 2004, pp.45-46 참조)

樵國 : 허지만, 너두 이놈아, 인젠 먹은거 겨눌날이 왔다. 함경두선
너 같은 지주놈들의 땅하구, 일본놈들이 빼서갔든 땅은, 모
주리 몰수해서, 작인들한테 전부 노나줬다. 작인들은 대두
한 말에 두되가웃식 현물세를 바치구나선, 남은 떡해먹구,
술해먹구, 자유판매하구 제맘제콩이야. 천지가 뒤바뀌어 이
놈아. 개벽을 했어. 느이놈들이 잘먹구 날뛰든 세상이 뒤바
뀌단 말이야.

토지혁명으로 들떠 있는 북한의 활기찬 농촌 모습을 중개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함세덕은 인민주의의 내용이 되는 원시
주의, 농본주의적 이미지를 북한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 이로써 북한을 이상적인 국가로 추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고목>에서 북한의 모습은 이렇듯 낭만적으로 추상화되어 재현
되고 있는 반면에 남한의 모습은 타락한 지도자와 봉건 지주의 결
탁으로 인해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다음은 ‘진이’의 대사를 통해 ‘파시즘’을 언급하면서 이를 남한
사회와 동일시한 장면이다.

稭伊 : ...조선이 현재 이렇게 혼란돼 있고 통일이 지연되는 건 이
들 친일파, 파쇼분자들 때문이에요. 민주주의란 구호 뿐이고
일체가 독재자의 손아래 운영돼 나가구 있기 때문이에요.

稭伊 : 뭉치는거야 좋지만, 쌀에다 양젓물을 어떻게 뭉치겠어요? 친
일파, 민족반역잔 양젓물이에요. 먹으면 죽는 양젓물이에요.
팥하구, 콩하구, 수수, 조, 쌀을 합치면 맛있는 오크밥이 되
지만, 그우에다 양젓물을 섞어보세요. 그밥먹구 살수있나.

이와 같이, 함세덕은 북한을 인민 중심의 민족국가로, 남한을 독
재자 중심의 반민족적 파쇼국가로 재현하고 있다.

아래 동정의 대사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함세덕이 인민주의를

민족주의와 접합²⁹⁾시킴으로써 좌파적 민족국가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⁰⁾

東正 : ...우리 고을의 농군들이 오각하에게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조선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 전부가 오각하에게서 떠러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오각하께서 민중의 품안으로 들어오시지를 못하고 늘 민중과 유리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늘 그들의 편이 되고, 그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싸워주시지 않고, 그들의 행복과 이익에 배치되는 자본가, 지주, 약덕 모리배들, 일부 특권계급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대중이란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각하께서 북조선처럼 땅을 골고루 노나 준다고 했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땅에 코가 닿도록 절을 하고 그야말로 신주님으로 받들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진정한 지도자들은 이들 대중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결코 수국아버지 그 목에 달리신 흑 같은 존재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고목>의 민족담론은 인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접합을 통해 북한을 이상적인 민족국가로 추상화하고, 남한을 ‘반민족적 파쇼국

29) “접합이란 어떤 조건 아래 두 개의 다른 요소를 서로 통일시킬 수 있는 연결형태이다. 그것은 항상 필연적이거나, 결정된, 절대적인, 필수적인 것이 아닌 연결이다. 과연 어떤 조건에서 연결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반문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담론의 ‘통일성unity’이란 사실 다양하고 서로 구분되는 요소들을 접합시킨 것인데, 이들은 아무런 필연적인 ‘소속’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접합될 수 있다.”(스튜어트 홀,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1996, pp.119-120)

30) “이데올로기로서의 인민주의는 완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교한 체계를 갖춘 것도 아니다. 인민주의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문제는 그것이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했을 때이다. 그것은 자주 민족주의와 결합하고 또 더러는 마르크시즘과도 결합한다. 물론 파시즘으로 전화하기도 한다.”(김철, 『국민이라는 노예』, 삼인, 2005, pp.227)

가'로 대립시킴으로써 성취되고 있다.

3. 극의 장르성과 풍자적 인물

해방 직후 이기영은 “소설보다 희곡을 쓰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³¹⁾ 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극의 장르성에 주목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해방기는 좌파와 우파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극단화된 시기였고, 다른 무엇보다도 희곡이 제재로 취할 만한 첨예화된 사회세력 간의 갈등이 현존하던 시기였다.³²⁾ 함세덕은 이러한 갈등을 극 속에 채용함으로써 작가로서의 탁월한 감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함세덕은 남한 사회를 그리면서 실로 현실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좌파의 운명을 비극의 소재로 선택하지 않고, 당시 현실적으로는 재기의 움직임을 한창 보여주고 있던 봉건 우파를 몰락하는 비극적 주인공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봉건 우파가 극의 장르성 안에서 주인공으로 채택된 이상, 현실적인 상승 국면과는 관계없이 그는 극 장르의 ‘총체성’ 안에서 필연적인 붕괴를 맞이할 운명으로 그려지게 된다. 즉, 함세덕은 좌파의 현실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당위’가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위가 ‘삶’을 말살하는 형식인 희곡의 장르성을 적절히 활용했던 것이다.³³⁾

31) 이기영, 「조선문학의 지향-문인 좌담회 속기록」, 『예술』 3호, 1946.1

32) 일반적으로 극은 가장 극단화되어 최고도로 첨예화된 지점에 도달한 사회 세력들 간의 갈등을 자신의 중심 제재로 삼는다는 점은 논쟁이 필요 없는 자명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게오르크 루카치, 이영욱 역, 『역사소설론』, 거름, 1987, p.117 참조)

33) “당위는 삶을 말살한다. 그리고 드라마적 주인공이 삶의 감각적 현상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식을 몸에 두르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존재하는 초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서의 죽음이라는 상징적인 의식을 감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게오르크 루카치, 반성완 역, 『小説의 理論』, 심설당, 1985, p.58)

당시 남로당은 총결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남한 사회에서의 남로당의 운명은 ‘극적’이었으며, 총결산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거나 붕괴되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만이 남은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⁴⁾

주인공 거북은 봉건지주이며, 우파정치인으로서 남한의 좌파세력을 대표하는 하동정과 북한의 인민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봉건 우파적인 생활과 관념을 극적 논리 안에서 총결산하게 된다. 그의 청산은 곧 좌파의 승리를 의미하며 남로당의 재기를 의미한다. 하동정과 좌파 세력은 극적 논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승리한다. 반대로 거북과 오각하, 봉건우파의 세력들은 총체적인 몰락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극에서 거북의 운명이 봉건 우파 전체의 운명으로 그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운명’을 취급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극 장르의 특성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보아, <고목>은 극의 총체성, 혹은 전체성의 힘을 빌어 봉건사회의 몰락과 새로운 시대의 필연성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웅적인 좌절이었다. 거북의 아래와 같은 변민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북 : ...공산당에선 내 땅두 이렇게 뺏아갈꺼야...오늘 같은 똑같은 방법으루, 할아버님때 부터 내려오는 이천석직일 뺏어 갈꺼야...나를 막다른 골목에다 몰아넣놓구...꿈작딸삭두 못하게 칭칭엮어놓구...내, 이, 이천석직일 송두리째 빼, 뺏어갈꺼야.

34) 어쩔 수 없이 이전의 행동들, 특히 이러한 행동들을 고무한 보편적인 태도 내지는 삶에 대한 입장에서 유래하는 이러한 결과들은 막강한 삶의 중압으로 집중되며, 이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총결산해야만 한다는 것이 보편적이며 통상적인 생활사실이다. 동시에 여기에서는 극적인 생활사실들과 사회의 혁명적 위기들 사이에 놓여진 연관관계가 공공연히 드러난다. 왜냐하면 특히 사회적 집단, 예를 들면 당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총결산이 대부분 위기의 시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게오르그 루카치, 『역사소설론』, 앞의 책, p.122)

바로 이 지점에 극이 가지는 ‘필수불가결한 시대착오’의 문제가 여실히 개입되어 있다.³⁵⁾ 극에서와는 달리 현실 안에서 이후 남로당은 남한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되며 월북의 길을 걷게 되고, 반대로 거북을 비롯한 봉건우파들은 남한에서 재기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극적 시대착오의 문제를 비껴나서 극이 지녀야 할 필수적 진실을 보존³⁶⁾하기 위하여 함세덕이 취한 수법은 풍자이다.

이 작품의 ‘풍자’가 지닌 강점은 우파의 문제점을 거북 스스로의 입을 통해 폭로하도록 장치한 점이다. 이는 1930년대에 유행했던 풍자극 수법을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고, 이 작품이 유독 일반 관객에게 설득력을 지니고 감정이입을 용이케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당시 너무나도 자명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던 현실과 극의 모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루카치가 경계하기도 했던 역사적 필연성의 신비화를³⁷⁾ 조금이나마 피하기 위해서, 함세덕은 극의 결말 부분에서 거북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려내었다.

<고목>이 위에서 말한 필수불가결한 시대착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필수적 진실’을 보존하여 오늘날의 관객들에게까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북’이라는 인물의 탁월한 형상화에 힘입은 바 크다.

거북의 인물형상은 이 극 가운데서 가장 직접적이고 그의 심리적 특징들도 현실적이다. 그는 자기 시대의 모습을 지니면서도 모든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인물이다. 거북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개인적 성격특성과 남한에서 권력을 얻으려는 열정의 주체성이 최

35) 게오르그 루카치, 『역사소설론』, 앞의 책, p.192 참조

36) 게오르그 루카치, 앞의 책, 앞의 면 참조

37) 게오르그 루카치, 앞의 책, p.204 참조

고도로 첨예화된 지점에서 가장 강력하게 ‘오각하’와 대립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거북 자신의 열정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그와 대립하는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승리를 얻게 만든 점이 이 극의 탁월함이다.³⁸⁾ 거북의 열정은 그 자체 내에 갈등을 추동시키고 매듭짓게 하는 ‘운동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만큼 인간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의 사악함은 더 이상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도 거북은 인격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운명적 중압에 의해 고목을 내어주지만 결코 굴복하지는 않는다. 그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거북의 운명이 하나의 보편적인 운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극의 정점에서 사상적인 집중과 축약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정점에서의 이러한 집중과 축약이 미약한 이유는 대립하는 세력들의 개성화가 불충분했기에, 그들의 성격구현이 충분히 탄력적으로 무르익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의 갈등은 거북 내부의 심리적 갈등으로 약화되어 버리고 만 듯하다.

비교적 함세덕의 인격체가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려진 데 비해, 대립하는 주체인 하동정의 형상화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그저 이상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성격의 개성화가 불충분하다. 이 점이 바로 이 극의 풍자적 감도가 떨어지고 하동정에게 감동적인 공감의 덜 이루어지는 이유가 된다.

하동정은 줄거리를 촉진시키는 전진적 모티브를 제공하여 극에

38)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깊이와 비극에 대한 지혜는 바로, 개인적 성격 특성과 열정의 주체성을 최고도로 첨예화시켜, 이를 갈등의 보편성과 분리 불가능하게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점에서 드러난다.”(게오르그 루카치, 앞의 책, p.139)

봉사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인물들이 애써 굴려 놓은 갈등의 정점에 무임승차하여 혜택을 나누어 가질 뿐이다. 바로 이 점에 이극의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한다. 이것은 이극이 ‘운동의 총체성’을 향해서 전진하지 않고 ‘좌파 국가 건설’을 향한 명확한 정치적 선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거북이 충분히 발전되고, 충분히 개별화된 인격체로 그려진 반면, 하동정은 왜 그러한 성숙과 발효를 거치지 못한 채로 형상화되고 말았을까? 이 부분은 함세덕의 목적론적 역사철학과 선부론 정치주의가 ‘극적 리얼리티’를 훼손하고 있는 지점이다.

함세덕은 북한정권을 절대화, 신비화시켜야 하는 강박 때문에 하동정을 살아 있는 인물로 형상화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다보면 그의 단점이 노출되어야 되고, 신비적 아우라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함세덕의 정치적 목적의식이 극적 진실 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풀어질 수 있었다라면 이 작품은 그야말로 당대의 ‘필수적 진실’을 보존한, 극의 총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IV. 함세덕 <고목>의 희곡사적 의의와 한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세덕은 <고목>에서 거북을 몰락하는 세대의 표상으로서,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욕구에 충만해 있는 비극적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해방기의 주요 갈등을 봉건 우파의 몰락으로 해소시키려고 의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함세덕이 의도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당시의 객관현실에서 가장 손쉽게 취택할 수 있는 소재는 무엇보다도 ‘10월 인민항쟁’이었다. 이는 당대 남한 사회의 모순이 현실적으로 폭발한 예이며, 좌파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에 가장 좋은

소재였다.³⁹⁾

이에 문학가동맹의 김남천도 ‘10월 인민항쟁’의 문학적 형상화의 필요성을 소리 높여 주창한 바 있다. 이 시기엔 이미 루카치가 한국사회에 소개된 후였고, 루카치를 탐독한 작가들이 많았다.⁴⁰⁾ 김남천은 루카치의 ‘지킹엔 논쟁과 유물론 미학의 확립’을 읽고 민저형 비극미학을 10월 인민항쟁에서 이끌어내고자 열망했으며 역사적 혁명적 일대 사건이 비극적 미학으로 솟아오르지 않으면 안 되며, 문학가동맹은 그 책무를 짊어졌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주장을 그는 전재동포구제 문예강연회(1946. 12)에서 절망적으로 외쳤던 것이다.⁴¹⁾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함세덕은 10월 인민항쟁의 극화 대신 봉건적 지주 거북을 주인공으로 하는 풍자극을 선택했다.⁴²⁾ 즉,

39) 10월 인민항쟁은 실로 조선인민의 모든 자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이다. 문학의 자유의 위기는 이리하여 구원되고, 투쟁과 승리의 새로운 길은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인민항쟁은 조선문학의 새로운 기원이 되었으며, 조선의 문학운동은 인민항쟁과 영원히 분리할 수 없이 결합된 것이다. 이로부터의 조선문학은 일찍이 신문학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민항쟁의 정신을 떠나서는 영구히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임화, 「인민항쟁과 문학운동」, 『문학』, 1947. 2)

40) “식민지 조선에서 루카치의 저작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철학자 서인석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그 이전에 김남천과 임화 등도 루카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국문학자 강영주는 김남천이 쓴 「조선적 장편소설의 일고찰」(《동아일보》 1937년 10월 19일 23면)을 보면 그가 「토론을 위한 보고 연설」과 「부르주아 서사시로서의 장편소설」중 최소한 하나는 이미 그 이전에 읽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임화가 쓴 「휴머니즘 논쟁의 총결산」(《조광》 1938년 4월)에서는 루카치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기도 한다.”(김경식, 『게오르크 루카치』, 한울 아카데미, 2000, p.35)

41) 김윤식,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p.45-46

함세덕은 당시 매일 밤, 연극 ‘봉선화’의 공연장에 김남천(당시 남로당 문화부장)과 동행하여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함세덕 또한 루카치의 역사극 이론에 영향 받았음을 알 수 있다.(노제운, 「자유를 향한 憧憬에서 닫힌 현실로」, 『함세덕전집』 2, 지식산업사, 1996, p.565 참조)

함세덕은 당시 남한 사회에서 무대화의 가능성이 전무한⁴³⁾ ‘10월 인민항쟁’을 구체적인 극적 갈등으로 삼기보다는 그러한 갈등이 폭발하게 된 계기, 즉 이전의 풍부한 생활 사실들에 근거한 갈등을 보다 보편적인 갈등으로 제시함으로써⁴⁴⁾, 암시적으로 ‘10월 인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함세덕이 <고목>에서 루카치가 말한 ‘극의 총체성’에 도전하여 당대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적 갈등을 표현해내고자 시도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나친 정치적 의도성으로 말미암아 현실적 지평을 멀리 넘어서지 못하고 목적극의 한계를 노정하고 말았다.

<고목>은 봉건지주를 비롯한 친일적 지도자들의 몰락의 필연성

42) 김남천은 <고목>이 실린 <문학> 3호에서 당시 문학이 10월 인민항쟁을 작품 속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1946년 9월 24일에서 시작된 이른바 10월 인민항쟁을 창조적 대상으로 할 때엔 그것이 아직도 수습과정에 있는 사건이요 또 시간적 거리로 보아 너무 근접해 있고 공간적으로 너무 작가들 자신과 근접하게 한 장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의 명확한 과학적 검토와 미학적 판단을 가지고 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김남천, 「대중투쟁과 창조적 실천의 문제」, 『문학』 3호, 1947. 4)

43) “1월 30일 고시로 인하여 예술가에 대한 야만 테러리즘은 합법화정상화되었으며 식민지적 오락정책은 노골적으로 정당화되었으며 민주주의적 계몽에 대한 우리의 열렬한 염원은 완전히 봉쇄당하였으며, 그 대신 극장의 모리행위와 불건전한 퇴폐적인 오락물과 특히 외국영화의 강제상연은 경찰력에 의하여 완전히 보호되는 결과를 지은 것입니다.”(김남천, 「남조선의 현정세와 문화예술의 위기」, 『문학평론』 3호, 1947. 4)

44) “극형식이 갖는 생활의 진실은 인류사의 거대한 혁명들에만 기계적이며 편협한 방식으로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훌륭한 극적 갈등은 어쨌든 거대한 사회혁명의 인간적, 도덕적 특성들을 요약해 내지만, 그러나 바로 이때 형상화의 목표가 인간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되기 때문에, 구체적 갈등이 직접적으로 바로 이러한 갈등을 조건지우는 변혁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혁은 물론 보편적인 갈등의 토대를 형성하지만, 이러한 토대와 구체적인 갈등의 결합은 매우 복잡하고 매개적인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게오르크 루카치, 앞의 책, p.119)

을 제시하고 좌파 중심의 새로운 국가 건설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 작품인데, 이는 해방기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함세덕의 주장은 강한 국가주의적 성격 때문에 과시즘적 북한정권의 당위성을 설파해주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이는 문학과 정치의 비매개적 밀월관계가 어떻게 문학이 과시즘에 손쉽게 복무하게 되는 예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함세덕의 <고목>이 국민문학 시기에 쓰여진 <거리는 쾌청한 가을날씨>를 개작한 작품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함세덕이 지닌 이러한 성격은 이미 국민문학 시기부터 준비되었던 것이었다.

독일의 예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희곡은 이념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 희곡이란 작가가 국가적 심금에 접하여 그 內底에서부터 우리나라를 것이므로 앞으로 창작될 것이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 제재의 선택은 현재의 우리들로서는 대동아공영권 확립의 국책에 順應할 건전한 건설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고 指導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종래의 프롤레타리아 연극처럼 메가폰을 들고 슈프레하-콜을 할라면 가두나 연단에 설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무대를 통해서 이념을 명백히 구체화하고 생명화해야 한다.⁴⁵⁾

이처럼 일제 말 국가주의에 우선한 함세덕의 사상은 해방 이후에도 국가의 내용만 바뀐 채 고스란히 이어져서 작품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세덕의 <고목>은 당대 현실에 주목하여 극의 총체성 획득에 도전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희곡사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만하다.

45) 함세덕, 「新劇과 國民演劇」, 『매일신보』, 1941. 2. 11

V. 결론

함세덕이 해방기에 쓴 희곡 <고목>은 당시 위기에 처해 있던 좌파의 정치적 입지를 살려 내고 좌파적 국가 건설을 선전하기 위해 민족담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우파의 ‘인민’, ‘민족’, ‘국가’의 개념을 재정의한 후에, 이를 ‘국가’ 개념 안으로 수렴시킴으로써 민족담론의 형태를 통해 좌파적 국가 건설의 당위성을 논리화하고자 하였다.

<고목>이 구사한 민족담론을 위한 형상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회진화론적 시간관의 활용’이다. 함세덕은 남로당이 제시한 국가모텔을 선전하고 북한정권을 찬양하기 위해 당시 대중적 지지를 받기 어려웠던 좌파적 사상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미 보편화된 사회진화론적 관념을 배경으로 이용함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둘째는 ‘인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접합’이다. 이를 통하여 함세덕은 북한을 이상적인 민족국가로 추상화하고 남한을 ‘반민족적 파쇼국가’로 대립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셋째는 ‘극의 장르성과 풍자적 인물의 활용’이다. 극의 장르성을 활용하여 당시 상승하고 있던 세력인 봉건 우파를 비극적 주인공으로서 몰락하는 세대로 그려내고 하락의 길을 걷고 있던 좌파를 필연적 승리의 세력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또한 ‘거북’이라는 풍자적 인물의 형상화를 통하여 대중과의 원활한 소통과 현실감을 획득하였다.

함세덕의 <고목>에 나타난 민족담론은 일제 강점기의 국가주의적 잔재에 연결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극 장르의 총체성 획득에 도전한 사례라는 점에서 희곡사적 의의를 짚어볼 수 있겠다.

주제어(Key words) : 민족담론(national discourse), 사회진화론적 시간관
(social-evolutional viewpoint of time),
인민주의(populism), 민족주의(nationalism),
접합(articulation), 극 장르(genre of drama),
풍자(satire)

참고문헌

<기본자료>

<개벽>, <대조>, <문학>, <문화전선>, <문학평론>, <중앙신문>,
<예술>, <매일신보>

<논문>

- 김동권, 「당대놀부전 해설」, 『해방공간 희곡 연구』, 2000, pp.117-124.
김동권, 「함세덕 희곡의 개작과 그 의미」, 『해방공간 희곡 연구』, 2000.
pp.79-96.
김재석, 「고목에 나타난 일제 잔재 청산과 기득권 유지기대의 충돌」,
『함세덕』, 태학사, 1995. pp.267-268.
김정인, 「1920년대 전반기 민족담론의 전개와 좌우투쟁」, 한국역사연
구회, 『역사와 현실』 제39권, 2001, pp.232-259.
박성진, 「한국사회에 적용된 사회진화론의 성격에 대한 재해석」, 『근
현대사강좌』 제10호, 한국현대사연구회, 1998. 12. pp.11-36.
백동현, 「대한제국기 언론매체와 근대민족담론의 변화」, 『내일을 여는
역사』 제19호, 2005. 3. pp.160-175.
오선민, 「민족통합의 서사전략」,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 소명출
판, 2003, pp.155-156.
이명찬, 「해방기 김기림 시론에 나타난 민족주의의 성과와 한계」, 『한
국근대문학과 민족 - 국가 담론』, 소명출판, 2005, 293-315.

- 이상란, 「함세덕의 고목에 나타난 역사적 담론 분석」, 『함세덕』, 새미, 2001, 227-257.
- 이송희, 「한말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전개」, 『부산사학』 제22집, 1992. 6, pp.99-139.
- 장혜전, 「함세덕 회곡의 지속과 변모」, 『함세덕』, 새미, 2001, pp.279-311.
- 장수익, 「한국근대소설과 사회진화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9집, 2006. 6, pp.273-308.
- 황병주, 「미군정기 전제민주화운동과 ‘민족담론」,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제35권, 2000. 3. pp.76-113.

<단행본>

- 게오르크 루카치, 이영옥 역, 『역사소설론』, 거름, 1987
- 게오르크 루카치, 반성완 역, 『小説의 理論』, 심철당, 1985
- 김경식, 『게오르크 루카치』, 한울 아카데미, 2000
- 김만수, 『함세덕』, 건국대학교출판부, 2003
- 김윤식,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김철, 『국민이라는 노예』, 삼인, 2005
- 노제운 편, 『함세덕전집』 2, 지식산업사, 1996
- 레이 초우, 정재서 역, 『원시적 열정』, 이산, 2004.
- 릴라 간디, 이영옥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한국근대문학과 민족-국가 담론』, 소명출판, 2005
- 스튜어트 홀,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1996
- 이승원, 오선민, 정여울,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3
- V.N. 볼로쉬노프, 송기한 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2005

Representing Strategy for National Discourse
in Play <Gomok> by Ham Sae Deok

Baik, Seung-Suk

This paper intends to find the 'national discourse' expressed in <Gomok> written by Ham Sae Deok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Most of the dialogues in <Gomok> pursue the substitution of the concept of rightists for leftists. <Gomok> tried to redefine the concepts of 'People', 'Nation', and 'State'. This is for the national discourse centered round leftists.

Ham Sae Deok made two devices to form the national discourse, First, he used evolutionary viewpoint of time. <Gomok> wanted to express the inevitability of feudal rightists' collapse through the ideas of continuity and universality in modern view of history. Second is the articulation of populism and nationalism. This is to abstract North Korea's political power as a nation-state centered in people, and to represent South Korea as an antinational dictatorship.

<Gomok> of Ham Sae Deok has a fault derived from partial political intention. But this play also gains a high posi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plays by challenging the concept of historical play's totality of Lukacs' and by obtaining some success.

백승숙

영남대학교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60번지

전화번호: (053) 767-0587 (휴대전화) 017-811-0587

전자우편: pinkpanza@hanmail.net

이 논문은	2007년	월	일	투고하여
	2007년	월	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월	일	간행함